

5 · 18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에서의 간호활동 경험

양 야 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xperiences of Nursing Activities in the Gwangju Area

Yang, Ya Ki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fine the experiences of nursing activities in Gwangju area during the May 18 (5·18) Democratic Uprising over 30 years ago. **Methods:** Data were collected in 2010 and 2011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Ten nurses who worked in general hospitals in the Gwangju area during the 5·18 Democratic Uprising were interviewed using open-ended questions. Each interview lasted about 2~3 hours. Verbatim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Van Kaam's method of phenomenological analysis. **Results:** Four categories emerged from the analysis: anxiety about the incident which was experienced for the first time; progress of the 5·18 events and relationship to participants; changes in nursing environment; retrospection and wishes related to the 5·18 incident. **Conclusion:** This oral history study revealed more clearly of the experiences of nursing activities in the Gwangju area during the 5·18 Democratic Uprising. The data may provide a basis for writing history nursing in the community, and can be a basis for guidelines covering nursing care in crisis.

Key Words: 5·18 Democratic Uprising, Oral history, Nursing activit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은 30여 년이 지났건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배태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각종 의례와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회 청문회를 비롯

해 사법부의 재판과 국방부의 진상규명 활동이 있었다. 그리하여 은폐 혹은 왜곡되었던 5·18의 실체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전개 양상들이 어느 정도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제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아와 성숙 그리고 인권 신장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그 위상이 확실히 정립되었다. 이데올로기와 폭동론에 근거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의 한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

주요어: 5·18민주화운동, 구술사, 간호활동

Corresponding author: Yang, Ya Ki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570-749, Korea.
Tel: +82-63-850-6019, Fax: +82-63-850-6060, E-mail: ykyang@wku.ac.kr

- 본 연구는 2013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This work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3.

투고일: 2013년 11월 8일 / **수정일:** 2013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실이지만, 명백하게 드러난 실체를 전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5·18은 이미 정치·사회적으로 1980년대와는 다른 차원과 담론의 지평으로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기록들은 2011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을 표상하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했다 (Jung, 2013).

5·18은 지역사회 간호 역사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상과 의미를 갖는 주제이다. 사건이 전개되었던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간호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5·18에 관한 간호사들의 경험과 활동 사례들, 그리고 이 사건이 주었던 충격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 분야에서 5·18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이다. 이는 간호의 역사 찾기와 역사 쓰기 분야, 그리고 아주 특별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간호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성찰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5·18은 다양한 학문분야들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졌는데, 간호학과 유관성이 깊은 연구 및 조사 활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18 당시 의료인과 간호활동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기록되었던 것은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Institute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1990)이다. 여기에는 약 500명의 경험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의료인과 간호활동에 관한 내용은 극히 적어서 당시를 재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996년에 광주광역시사회가 발간한 「5·18 의료활동: 자료 기록 및 증언」과 2008년, 한국 의사 100년 기념재단에서 발간한 「5·18민중항쟁 의료활동에 대한 재조명사업 연구용역 보고서」는 기존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료인들을 목소리를 천착하고 재정리했으며, 특정 병원에 집중되었던 관심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듯 5·18과 의료인 그리고 의료활동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간호사는 언제나 주변인으로 분류되었고, 간호 관련 내용도 빈약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둘째, 5·18과 의료인 및 의료 활동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학술 연구들이 존재한다. Byun과 Park (2000)의 「치유되지 않은 5월」이 시초라 할 수 있다. 5·18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피해 치유가 왜 절실한 것인가를 주제로 다루었으나 의료인과 의료 활동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극미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었다. 최근 5·18 관련자의 심리적 고통을 다룬 연구(Oh & Shin, 2008)가 발표되었으나 또한 의료 활동을 초점으로 한 접근은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Jung, Yang과 Kim (2008)의 연구가 5·18 당

시 의료공간이 어떻게 작동했으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의료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밝힌 첫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병원만을 대상으로 했고, 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나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다. 5·18과 간호사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Yang과 Jung (2013)의 연구이다. 이는 당시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집단 기억과 개인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구술사적 연구방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당시 활동했던 10명의 간호사의 간호경험을 현재의 상황에서 불러오고자 한다. 구술사적 연구방법은 넓은 의미에서 과거의 기억을 말로 회상한 것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는 역사연구이다(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05). 구술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간호사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기억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공식화되지 않았던 5·18의 이면을 보여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구술은 사적 기억을 재현해주는 주요한 기제이나 인간의 기억된 기록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현되므로 구술자가 사망하게 되면 더 이상 기록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시성을 지닌다. 또한 어느 누구도 반복하여 구술을 행하더라도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한시성과 유일성이 구술기록을 시급히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Kim & Han, 2013).

5·18 당시 간호사로 재직했던 관련자들의 퇴직 및 사직으로 인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고령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5·18 당시 간호활동에 관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당시 활동했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 조사는 보다 시급하게 요구되어지며, 경험과 기억은 복원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부재하다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당시 부상자들과 사망자들을 간호했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 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더 긴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1980년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 종합병원에 근무한 10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간호활동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에서 간호활동을 한 간호사들의 사적인 기억을 토대로 당시 간호활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문헌을 통하여 당시의 간호활동에 대한 공적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심층면접을 통한 구술생애사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구술사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면 공식적 기록과 국가적 기록이 부재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기존의 문헌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존의 자료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기록자의 치중된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Kim, 2013). 또한 구술사적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이고 독창적인 역사 연구의 한 분야이다(Yoon & Ham, 2006).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생존해 있으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의 종합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소속된 지역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간호부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다음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대상자 선정은 눈덩이식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간호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 연구참여를 거절하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눈덩이식 표집방법은 한 사람의 대상자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아서 진행을 하는 표집방법으로 편의 표집 방법 중의 하나이다(Lee, Yang, Gu, & Eun, 2009). 본 연구에서는 당시 광주기독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한명과 면담을 시작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대상자를 소개받아서 면담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한 종합병원은 당시 민간인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광주기독병원, 광주직접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으로 모두 도심에 위치해 있다. 구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18 당시 각 병원들의 환경과 상황들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특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각 병원별로 2~3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63.4세였으며, 50대가 4명, 60대가 2명, 70대가 4명이었다. 5·18 당시 병원에서의

직위는 간부직 3명, 수간호사 1명, 일반간호사 6명이었다. 근무 부서는 간호부 3명, 응급실 3명, 분만실 1명, 병동 1명, 중앙공급실 1명, 중환자실 1명이었다. 수술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을 섭외하는 것도 의미를 두고 고려되었으나, 수술실 근무자의 경험과 활동은 수술실 내로 제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면담 당시 직위는 은퇴 4명, 간부직 3명, 수간호사 2명, 공무원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절차, 자료보관 및 폐기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익명처리에 대한 확인과 함께 녹음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답변 거부권,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또한 협조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동의하에 휴대용 녹음기와 캠코더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먼저 면담을 하기 전에 소개를 받은 경위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에 응할 수 있는지를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면담에 응하겠다고 허락을 한 대상자와는 면담을 위해 약속 날짜와 시간 및 장소를 정한 다음 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면담을 위한 기초 조사표와 면담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면담 기초 조사표에는 이름, 출생연도, 출생지, 학력, 직업, 종교, 혼인여부(자녀 포함), 가족(형제), 경제 상태, 현 거주지, 현병력, 연락처, 면접 장소, 면접 시간, 면접자, 면접 상황 등을 기록하였다. 초기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5·18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와 같은 도입질문으로 시작하여 5·18 발발에 대한 인식과 초기 국면에서의 병원의 분위기, 간호사와 외부인(계엄군, 시민군, 일반 시민, 보호자 등)과의 관계, 5·18로 인한 병원의 운영 및 구조의 변화와 치료 활동, 의약품과 식품, 환자복 등의 조달과 공급, 5·18에 관한 회고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발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였다. 질문항목의 구성은 전문가 교수 2인이 문헌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이루어졌다. 면담 시, 연구의 목적, 면담 내용의 녹음과 녹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하였고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의 허락 하에 녹음, 녹화된 내용은 면담이 끝나면 녹취록으로 필사하여 보관하였다. 면담자료와 함께 5·

18 당시 광주시내 일원의 상황과 진행과정에 있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5·18 관련 전문 서적과 같은 문자자료와 유적, 사진, 영상 등과 같은 비문자 자료들도 수집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0명이었고, 1인당 1~2회의 면담이 시행되었으며, 1회 면담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평균 2.5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2명이 한조가 되어 면담을 하였다. 면담 전 면담에 필요한 질문 항목을 기존문헌(Jung et al., 2008)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였으며 면담 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녹취록으로 필사하였는데, 녹취록 작성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녹취물로 표현하기 위하여 웃음소리, 침묵, 고개 끄덕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상황도 기록하였다. 또한 면담을 하면서 면담자가 경험하거나 느꼈던 것들에 대한 면담 일지를 면담 후 즉시 작성하였으며, 이를 녹취록과 함께 자료분석에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아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이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내용을 빠짐없이 읽는 방법(line by line reading)과 Van Kaam (1969)이 제시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간호활동 경험을 얻기 위해 심층 면담을 한 후 녹음 내용을 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된 의미들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주제들을 분류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의미를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비슷한 주제들끼리 모아서 더욱 추상화된 주제, 즉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최종적 범주들을 타당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범주와 주제, 부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고, 연구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료를 중심으로 Van Manen (2006) 사실주의적 이야기체로 기술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적합성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해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타당한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Morse, Hutchinson과 Penrod (1998)은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는 이론을 생성하는 동안 입증의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유도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유도된 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묘사한 것이 맞는 지를 반복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비교하기 위하여 사전에 확보한 문자 자료와 비문자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질문 항목 별로 나누어 대상자가 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읽고 검토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2인이 면담 내용과 분류하여 정리한 자료를 비교하였고,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의 검증을 거쳤다.

연구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에서의 간호활동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42개의 주진술로부터 20개의 부주제, 11개의 주제,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처음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불안’, ‘5·18 진행 상황 및 계엄군, 시민군과의 관계’, ‘간호 환경의 변화’, ‘5·18에 대한 회고와 바램’이었다(Table 1).

1. 처음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불안

연구참여자들은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사건인 5·18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였는데, 5·18이 시작되었음을 인식, 변화된 병원 내·외의 분위기와 발포 후 불안과 혼란으로 나눌 수 있었다.

1) 5·18이 시작되었음을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이전부터 사태가 고조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근무 중 병원 내에 학생들을 수색하러 들어온 군인을 목격하고 5·18이 시작되었음을 인식하였다. 기숙사 생활로 외부의 환경을 목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근한 동료, 내원한 환자를 통하여 5·18의 발발을 인식하였다. 특히, 참여자 6의 경우는 출근 길 시내에서 군인들의 수색을 경험하였다.

남편이 비를 온 몸에 양복에 비를 맞고 와가지고 느낌

Table 1. Experiences of Nursing Activities in Gwangju Area in the 5·18 Democratic Uprising

Categories	Theme	Sub theme
Anxiety about the incident as it was experienced for the first time	Recognition of start of 5·18	· Awareness through individual experience · Awareness through message from outside
	Change of atmosphere, anxiety and confusion after mass shooting	· Change of atmosphere in hospital · Anxiety and confusion after mass shooting
Progress of 5·18 and relationships	Anger against martial law forces	· Anger at martial law forces · Fear of martial law forces
	Compassion for citizen army and roles as citizens	· Compassion for citizen army · Role as a citizen
Changes in nursing environment	Changes day-to-day	· Changes in working patterns · Hospital access control
	Structural changes in patient care system	· Changes in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 Changes in nursing intervention flow
	Supply of medicines and food	· Supply of drugs and food · Supply of blood and oxygen
Retrospection and wishes for 5·18	Pride to be part of historical incident	· Pride to be part of historical incident as a nurse
	Silence for a long time and chagrin being mistaken	· Silence for a long time · Healing through interviewing
	Need to find nursing history and to write nursing history	· Need to find nursing history · Need to write nursing history
	Needs to extend of nursing care area	· Need for Emergency care and disaster nursing guidelines

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세가 불안하다 이런 말들을 그전에도 했었어요. 근무 중 뭘 큰일이 났단다. 시나가 난리란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에게서 군인이 금남로까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래 남편 말처럼 큰일이 났구나 싶었지요.(참여자 1)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서니 길에서 군인이 멈춰라 하면서 나한테 총을 대는 거예요. 간호원이고 출근하는 길이다 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총을 든 군인을 보고는 큰일이 났다 직감을 했어요.(참여자 6)

기숙사 생활을 해서 병원하고 기숙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환자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병원에 군인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큰 일이 났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참여자 7)

나이트 근무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 안에서 군인을 봤어요. 우리 병원은 의대하고 병원이 붙어 있잖아요. 학생들 잡으러 병원 안까지 군인들이 들어

온 거예요. 굉장히 불안 했지요(참여자 8)

2) 변화된 병원 내·외의 분위기 및 발포 후 불안과 혼란

초기에 내원한 환자의 상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으나 발포가 시작되면서 부터 내원 환자수는 급속히 늘어났고, 외부의 상황은 삼엄하고 위협해져 병원 밖으로의 출타는 제도적으로 통제되었다. 병원 내부로 총탄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하여 창문이나 병실 내부에 담요로 방어벽을 만들기도 하였다. 지척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병원 내에서도 총을 들고 있는 계엄군을 목격하고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되었고, 시민군을 수색, 체포하는 광경을 목격하며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국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다.

18, 19일의 환자는 평상시와 같았어요. 타박상이나 찰과상 정도, 그러나 평소보다는 수가 많았지요. 그런데도 청에서 크게 총소리가 들린 후부터 갑자기 총상 환자가 들어오고, 내부 장기들이 파손된 환자들이 밀려오고, 환

자들이 수도 없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넘게 아예 밖을 못 나가고 병원에서 생활을 했지요. 정말 한 이틀 사흘은 발 딛을 틈도 없이 북적북적했어요. 응급실이. 전쟁터 같았어요.(참여자 4)

저희 병원 응급실을 공격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응급실에 모여서 창문 전체를, 사망을 전부 이렇게 방패 막으로 담요를 쳤어요. 총소리가 나면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있고 그랬어요.(참여자 5)

무장한 군인들이 트럭으로 이렇게 막 옮겨지는 것을 봤어요. 굉장해 두렵지요. 아! 이런 게 전쟁인가 보다. 극심한 공포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계엄군이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총 들고 가까이 있으니 무서운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참여자 10)

총 쏘기 전에는 시내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시민들 때리고 이러는 거 다 봤지요. 맞을까봐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무섭기도 하고, 왜 이런 세상이 왔나, 또 언제 끝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참여자 3)

2. 5·18 진행 및 계엄군, 시민군과의 관계

5·18 진행 상황을 목격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계엄군, 시민군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데, 계엄군에게는 분노의 감정을 갖기도 하고,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시민군에게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시민의 일원으로 역할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1) 계엄군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병원 근처와 시내 곳곳에서 무장한 계엄군을 발견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였고, 시민들이 구타당하거나 공격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의 감정을 갖기도 하였다.

병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앰블란스로 출·퇴근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보니까 광주역 앞 광장에 돌멩이가 쌓이고 신발짝들이 무덤을 이루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나? 무슨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하나 생각해봤지요. 무섭기도 하고 분노가 앞섰어요.(참여자 1)

군인들이 시민을 잡아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앰블란스로 출·퇴근을 시켜줬거든요. 차 안에서 그

런 광경들을 보니까, 병원에서는 환자만 봤지, 큰일이 벌어졌다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가 힘을 합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 때부터 들기 시작했어요.(참여자 4)

응급실에 아이가 온몸이 다 피가 범벅이 되어 갖고 총을 맞아서 온몸이 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궁금했어요.(참여자 5)

총상 환자가 창자가 다 밖으로 나와서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탈수가 심하다 보니까 계속 물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더니 어느 순간 소리치는 것도 없이 그렇게 가셨어요.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지요.(참여자 10)

2) 시민군에게 연민을 느끼며 시민의 일원으로 역할

계엄군이 입원실이나 간호사 숙소 안까지 들어와 시민군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민군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주어야겠다는 연민의 감정들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위에 동참해야 하지 않나라는 감정과 함께 병원 내에서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양가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서 환자를 이송하는 시민군들에게 병원 가운을 제공하는 등 병원 외부의 시위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들이 입는 하얀 가운, 랩 가운을 쳤어요. 여기까지는 총을 겨누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참여자 4)

다른 병동에서 군인이 다녀갔다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숨겨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환자복 입으라고도 하고, 환자복 입혀서 린넨장에 숨겨 주기도 하고, 간호사들이 다 단속을 해줬어요.(참여자 7)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기도 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간호사들도 나가야 하지 않냐. 우리도 함께 해야 하지 않냐 생각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자 뜻을 모았지요.(참여자 1)

3. 간호환경의 변화

5·18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간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

는데, 5·18로 인한 일상의 변화, 환자 치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의약품과 식품, 환자복 등의 조달과 공급으로 나눌 수 있었다.

1) 5·18로 인한 일상의 변화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제외하고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가 폭증하는 부서로의 파견 근무가 잦았다. 그러나 5·18이 본격화되면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시내의 삼엄한 상황과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하여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했고, 병원 내에 상주하였다. 다만 초기에는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엠블란스,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래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이때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분을 확인케 하는 출입증을 발부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기존의 3교대근무 방식에서 2교대로, 혹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간호 업무에 임하는 형태였다.

일반 병동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어요. 바쁜 병동으로 간호사들이 파견을 많이 갔어요. 간호사들은 간호부 지침에 따르니, 파견가라 하면 가고, 파견 가면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그랬지요.(참여자 7)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상시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응급실이 이수라장이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총상 환자 들어오면서 부티는 저희는 집에 못 갔지요. 환자가 많아 서도 그렇고 시내가 위험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밖에도 못나가고 응급실 안에만 있었어요.(참여자 8)

아침에 출근하면서 군인을 만난 날 후로는 집을 못 갔어요. 병원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간호부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거기다가 담요만 깔고 자고 그랬지요.(참여자 6)

애들만 두고 온 경우에 우리 새끼들은 어쩐가 모르겠다. 밥은 먹나. 이런 소리가 나와. 병원에서 엠블란스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병원차는 그래도 공격을 안 한다고 하니까.(참여자 1)

2) 환자 치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병원이 외부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 환자들의 퇴원율은 평소보다 줄었거나 일부 입원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퇴원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통해 병실로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는 상태가 심각하여 5·18이후로도 오랫동안 장기 입원했던 환자가 많았다. 응급실의 경우는 밀려드는 환

자들로 병상이 부족하여 바닥에 매트를 깔거나 병원의 로비를 병실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병동의 경우 기존의 처방 전달 체계에 따라 간호 수행을 하는 방식이 유지되었으나 응급실과 수술실의 경우 이러한 처방 전달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인적 사항 확인이 되지 않아 차트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술 전 간호가 시행되지 못한 경우, 수술 도구의 소독이 지연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응급수술이 시행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초기에는 시위로 인한 찰과상, 타박상이 많았으나 총기가 발포된 이후 외상 환자와 중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전남대 병원 응급실의 경우 내원 당시 환자들을 분류하여 증상 별로 수술 전 준비를 하거나 죽음을 기다리게 하거나, 영안실로 보내는 수술을 밟는 대량처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병원이 안전했지요, 그래서 퇴원을 미루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시내에서도 어디론가 숨어야 되는 형편이었잖아요.(참여자 1)

의사들이 평소에는 응급실에 2명 있는데 그때는 항상 10명 이상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소수수술실에서는 항상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참여자 5)

환자가 오면 얼른 전화번호 물어봐서 가슴에다 매직으로 적어요. 왜냐면 의식이 없어지니까. 그 전에 물어서 적어놓고, 그래서 수술도 하고 나중에 가족에게 연락도 하고 그랬어요. 전쟁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죠. 전쟁이 나면 간호사는 이렇게 간호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3)

총상 환자가 들어오면 지금은 수술 전 매뉴얼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인적 사항 확인만 되면 수술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기구 소독할 틈도 없이. 무조건 수술실로 올리고.(참여자 8)

생전 처음 보는 총상 운드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요. 나중에는 이 위기 상황에서 별스런 아이디어가 다 번뜩이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요령도 생기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초능력이 나온다니까. 당시 상처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네요. 난자당 상처들, 과다 출혈, 나는 그 후로도 그런 상처는 지금껏 본 적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참여자 3)

환자가 너무 많아서 대량처치법을 했어요. 환자 오면 구분해서 수술할 사람, 죽을 사람 구분하고, 뇌가 나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군대에서나 그렇게 한다면서요.(참여자 8)

수납도 차트도 없어요. 피검사해가지고, 출혈 심하면

아이브이 꽂아 갖고 수혈하고 그랬지. 보호자 나타나면 돈을 받기도. 그때는 환자들한테 돈도 안 받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4)

3) 의약품과 식품, 환자복 등의 조달과 공급

종합병원은 약물 및 의료기기와 같은 물품들을 일정기간(1주일~3달)비축해두고 운용함으로 약물 및 의료기기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그러나 산소, 혈액과 같이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의료 관련 물품과 장기간 보유가 불가능한 마약류들의 경우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간호사 및 의료인의 헌혈, 시내·외 약국, 시내·외 병원에서의 의료약품 조달이 있었다. 수술 및 처치를 하는데 있어 혈액과 약품의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환자들의 급식과 직원들의 식사는 질적 저하는 있었지만 중단되지 않았다.

우리 병원은 모든 물자를 3개월분은 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공급실도 수술실도 약품이나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혈액하고 산소하고 마약은 그렇게 3개월분을 비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은 쉽게 떨어져 버렸지요. 근데 수술을 하려면 몰핀, 데메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다 마약이 부족하다고 말만 하면 대기하던 시민군들이 새벽이고 낮이고 약국 문을 두드리던지 개인병원에서 구해오던지 다 구해다 썼어요. 평상시 우리병원이 산소탱크가 50개로 쓰는데 나중에는 시민군들이 외부에서 교체해서 가져온 탱크가 우리병원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 병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요. 환자가 많아지니 소모품은 바닥이 났지요. 우리가 직접 구한 것은 아니고, 시민군한테 이야기 하면 다 얻어다 주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참여자 4)

젊은 간호사들도 피가 부족하다 말이 나오면 헌혈하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헌혈한다고 하면 병원 입구에서부터 양림동 오거리까지 줄을 서요. 저도 했어요. 해야 하나까. 차타고 방송하면서 피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 때.(참여자 3)

하루에 40킬로로 10가마 정도가 들어와요. 쌀이. 그러니까 트럭을 타고 빨간 적십자 깃발을 꽂고 가운데를 입고 그리고 나가면 계엄군들이 이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하는 가보더라고요.(참여자 2)

응급실에서 밥 먹을 정신은 없었는데, 환자들 식사가 나오기는 했어요. 직원들은 식권이 있었으니까 식당에 가

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보호자들은 나가서 사먹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환자하고 직원만 식사가 나와요. 환자가 남긴 것 먹기도 하고 그랬겠지요.(참여자 8)

세탁물은 미리미리 보관해두고 사용하니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수술 갈 때 환의로 같이입히고 그런 것은 못했어요. 너무나 수가 많으니까.(참여자 7)

4. 5·18에 대한 회고와 바램

연구참여자들은 5·18 당시를 현재 상황에서 회고하였는데,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역사적 사건에 동참했다는 자부심과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과 폭도로 오해를 받았던 억울함, 간호 역사 찾기와 쓰기의 필요성 제기, 간호영역 확장에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당부함으로써 나눌 수 있었다.

1)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역사적 사건에 동참했다는 자부심

참여자 2는 당시의 간호경험이 이후 간호사 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표현했다. 연구참여자들은 5·18 당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냈고,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오히려 정의로운 마음도 들었어요. 간호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돕는 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임했지요.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호사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요. 뭐 적이다 아군이다 해서 못 봐주고 그런 것도 없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은 들지요.(참여자 9)

병원에 들어온 이 부상자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자. 아주 간절한 염원으로 임했어요. 그것이 나이팅게일 정신 일까요. 밤에 창문에 담요 치고 다니던 날이 있어요. 펜라이트 하나 들고 다니는데 내가 나이팅게일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했네요.(참여자 3)

간호사는 현장에서 뛰어야지요. 저는 지금도 뭐 전쟁이 난다해도 현장에서 뛰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지요. 간호사니까요. 나는 그 후로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 때 생각해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참여자 2)

2)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과 폭도로 오해를 받았던 억울함

연구참여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5·18에 대해 함구해야 했던 사정과 일정 기간 동안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 폭도로 오해 받았던 경험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표현하였다.

학회나 이런 데를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한번은 서울에 갔는데 88년도였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오해다 곡해다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열변을 토했네. 억울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광주 시민들 다 정의로웠는데 폭도로 오해를 받고.(참여자 3)

우리 연수원이 저기 수원에가 있어요. 교육 때 광주에서 왔다하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5·18이에요. 외지에서 광주 오면 그 어느 곳 보다도 5·18 묘지에 가는 것을 원하고요. 그런데도 왜곡된 보도 때문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많이 놀라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듣고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알 길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기회가 되는 데로 이야기는 많이 하지요. 예전에는 말 못해요. 최근에서야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요.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참여자 4)

제가 간호협회 이사였잖아요. 그래서 총회를 가요. 서울로. 서울에 가면 각 시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막 5·18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별로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요. 청문회도 하고 처벌도 받고 진실이 많이 알려져서.(참여자 5)

이렇게 이야기 하니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도 같고, 속이 많이 후련하네요. 당시 환자들 생각도 나고, 지금도 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 후유증으로, 얼굴 보면 그 때 생각이 나지요. 내가 그 때 참 대처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뭔가 후련한 느낌, 비밀을 말한 느낌도 들고.(참여자 4)

3) 간호 역사 찾기와 쓰기의 필요성 제기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시대적, 정치적인 분위가 부정적이었던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회현상으로서 5·18을 적극적으로 기

록하거나 알리지 않았음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였다.

30년이 넘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이미 이렇게 다 퇴색이 되어 버리고 기억이 없어져버리고. 이제 와서 어찌라는 거여.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잘 보존했다면 박물관도 하나 나올 거예요. 간호사들은 너무 간호사 직업에 한정되어 있어요. 차팅이나 이런 것은 잘하는데. 그 때 그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나는 간호사로서 정말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자부만 하고 덮어둔 것이 문제지요. 일은 일대로 하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간호사는 5·18 때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부상자가 많았으면 당연히 간호사가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참여자 1)

4) 간호영역 확장에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당부

연구참여자들은 간호의 영역 확대와 전문 분야 간호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앞으로 간호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일, 업무만 잘하는 간호사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병원이라는 조직에서도 일어나므로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병든 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닌 간호사로 길러낼 수 있게 간호의 영역을 넓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참여자 6)

앞으로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현 사회 국제정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 북한과의 대립관계도 있고, 응급 시 간호라든가 위기관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지금 각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 상황보다 더 진보된 간호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간호계가 앞장서서 인권을 옹호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참여자 9)

논 의

본 연구는 1980년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 종합병원에 근무한 10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간호 활동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5·18 당시 직위는 간호감독 이상의

고위급 간부직, 수간호사의 중간 간부직, 그리고 일반 간호사 등 세 가지 부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연령대로 보면, 고위급 간부직은 모두 해방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고, 중간 간부직과 일반 간호사는 해방 직전에서 한국전쟁 직후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중간 간부직과 일반 간호사의 연령대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는 일반 간호사에서 수간호사로 승진이 빨리 이루어지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력이 많아져도 승진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최근의 간호환경(Kim & Sok, 2006)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간호전달체계의 변화와 계엄군에 대한 공포와 분노, 시국에 대한 성찰과 같은 개인적인 정서를 언급하였는데, 본인들이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당시에 크게 변하지 않는 기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인이기에 앞서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5·18에 대한 인식론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시민들을 목격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시민군을 조력했던 기억들을 회고하였는데, 이는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저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상을 당해 실려 오는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고립되고 단절된 도시에서의 불안과 공포, 시민들의 헌신성과 저항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전달체계의 변화는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의 접수에서 퇴원까지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변화와 간호사의 근무여건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되지 않아 차트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술 전후 간호가 시행되지 못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응급수술이 시행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모두 일시에 다수의 총상 환자가 밀려들며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대상자 치료 진행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부터 국내에 보급되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 적용되어지는 시스템으로 병력에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자료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원격 접속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서명된 서류를 만들어 교대와 관련한 업무흐름을 지원한다(Lee, Kim, & Kim, 2013). 그러나 하드웨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운 5·18 상황처럼 오늘날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고와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당시 근무 부서와 직위에 따라 상이한 간호경험에 관해 진술 하였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임상 경력, 교대 근무, 병상 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개인 정서가 상이하다(Yoo, 2011)는 결과에 비추어 향후 연구 주제를 좀 더 세분화 하고, 5·18 당시 각 간호 단위 별 간호활동 경험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5·18이 진행됨에 따라 병원에 상주하며 총상을 포함한 대상자 간호활동에 투입되었던 경험은 Jee (2005)의 베트남 전쟁 참전 시 한국군 간호장교의 간호경험과 Jee (2004)의 6.25 참전 간호경험 연구에서 드러난 참전 간호장교들의 간호경험과 유사하다. Jee (2004)는 참전 간호장교들이 내원 대상자의 수와 내원 환자의 상태가 부정기적이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인원의 능력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호를 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5·18이 베트남 전쟁이나 6.25전쟁과 같은 전쟁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총상은 간호 현장에서 흔히 관찰되어지는 사례가 아니므로 본 연구참여자들의 5·18 당시 총상 환자를 간호했던 경험은 Jee (2004)의 6.25 전쟁 당시 간호경험 연구와 더불어 응급·위기 간호의 한 맥락인 전쟁 시 간호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5·18 기간 동안의 간호활동 내용을 자세히 드러내는 자료의 발굴 및 축적 작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간호 단위 별 간호활동 경험의 재구성과 함께 간호사들을 좀 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하여 당시의 간호활동 경험에 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발굴해 낼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본 연구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 시대적인 이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금번 수술 작업을 통해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음을 표현하였고, 간호 역사 찾기와 역사 쓰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당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밀려드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였으며 함께 현장을 지킨 동료들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었고, 개개인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 참전 당시 작전이 전개됨에 따라 대량 전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의료진들은 밀려오는 환자로 인해 밤을 새워 가며 쉬지 못하고, 수술 및 처치를 하는 상황에서 간호장교들이 힘든 상황이었으나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장 상황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Jee (2004)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겠다.

국가재난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생존자뿐만 아니라 구호담당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악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차적인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Lee & Wang, 2008). 재해건강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인력 중 가장 유용한 인력으로 간주되는 간호사는 기존의 간호지식과 기술에 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을 접목하여 새로운 간호역할을 창출해 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교육 과정 내에 재해와 관련된 간호역량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다.

또한 참여자들은 금번 구술 작업을 통하여 누군가와 이야기를 함으로서 마음 한 구석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구술을 통해 그간 침묵되고 억압되며, 왜곡되고 고통에 찬 기억들을 드러냄으로써 개인의 기억을 자유롭게 하고 사회적으로 해방감을 갖게 되어 치유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Kim, 2012; Kim, 2013; Yoon, 2011)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금번 구술 작업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자 또한 인터뷰 도중 대상자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고 서러워하는 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게 되었고, 감정이입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술 작업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던 고통스러워서 침묵하고 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간호역사 연구는 여타 간호역사 연구, 즉 대한간호협회의 역사(Korean Nurses Association, 1997)에서 해당 부분이 기록되는 경우와 지역사회 간호의 특정 분야, 특정 시기, 특정 인물에 관한 연구(Jung et al., 2012; Yi, 2012; Yi, 2013)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경우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1980년 5월 광주 지역에서의 간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재조명하였다. 지역사회 간호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 변천과 성과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의 족적이 담긴 연구결과는 빈난하다. 이는 우리의 지난 역사를 찾고, 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각 지역의 간호역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사회 내의 간호성과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역할 모델 및 간호의 지침으로 삼아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1980년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에서의 간호활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문헌을 통하여 공적인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구술 생애사에 대한 질적 연구이며, 현재 생존해있으면서 이 기간 동안 종합병원에서 간호활동을 경험한 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5·18 기간 동안의 간호활동 경험

연구대상자들은 5·18 발발 사실을 개인적인 경험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전언을 통해 인식하였다. 5·18이 진행되고 발포가 시작되면서부터 급속히 늘어난 환자들을 간호하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병원 내에 상주하면서 간호활동에 전념하였다. 자상과 총상, 과다 출혈 환자들에 대한 간호가 주로 수행되었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전쟁과 같았다고 표현하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였다. 내원한 시민들의 처참한 상태를 목격하고 계엄군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환자의 치료 및 간호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하였는데, 첫 번째는 근무 패턴의 변화이다. 5·18이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은 병원 내에 상주하면서 간호활동에 전념하였다. 둘째는 치료 단계에서의 변화이다. 일반 병동의 경우, 기존의 체계에 따라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유지되으나 응급실과 수술실의 경우 큰 변화가 있었다.

2. 5·18에 대한 현재의 회고

연구참여자들은 5·18 당시를 현재 상황에서 회고하였는데 위기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낸 것에 대해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시대적, 정치적인 배경으로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과 5·18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표현하였다.

간호역사 찾기와 역사 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5·18은 지역사회 간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간호활동에 관한 기록이 부재하여 간호사들의 활동 흔적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현실에 대

해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간호영역 확장에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당부하였는데 예기치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간호활동 즉 전시, 내전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에 5·18 당시 자신들의 간호활동 경험이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 당시 광주 지역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간호 여건 등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광주 지역 간호의 역사는 배출 및 활동 인력에 비하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구술 조사는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당시 간호 환경에 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그동안 누락되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의료 공간과 의료인의 활동을 간호사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완하고 확장 시킴으로서 보다 생생하게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 구술 경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보다 정밀하게 수행되었고, 처음으로 구술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미 밝혀진 자료들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과 정황을 규명하고, 조직과 개인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가 집중적으로 고찰되었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그 간 어디서도 밝히지 않았던 개인적 감정과 소회를 공개함으로써, 그간의 동종의 혹은 유사한 성격의 구술 조사와 달리 복잡하고 생생한 심리의 편린을 알게 해주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5·18 이 종료된 이후에 관한 경험 부분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는 5·18 이 사건 그 자체로 종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에 그리고 관련자들의 가족과 개인에게 매우 오랫동안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넷째, 5·18을 전후한 시기에 광주 지역에 소재하는 대규모 의료 공간들에서의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간호 인력의 배치 구조와 변화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업무 형태와 달리 특수하고 비일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의료 공간과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 어떻게 대처 및 극복했는가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이미지와 현황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Byun, J. N., & Park, W. S. (Eds.). (2000). *The 1980 Kwangju Uprising after 20 years*. Seoul: Dahae.
- Institute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1990). *Historical data complete works of May Uprising Movements*. Seoul: Pullbit.
- Jee, Y. O. (2004). The nursing experience of nurse officers in Korean War.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2, 1-25.
- Jee, Y. O. (2005). The nursing experience of Korean nurse officers in Vietnam War.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3, 1-21.
- Jung, H. G., Yang, Y. K., & Kim, G. G. (2008). Medical space and coping of personnel in the 5·18 peoples' uprising - Focused on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mocracy & Human Rights*, 8(2), 75-105.
- Jung, K. S. (2013). Trajectory of social memory studies in Korea: In the context of multiple transition and global history. *Democracy & Human Rights*, 13(2), 347-394.
- Jung, M. S., Eun, Y., Noh, Y. G., Lee, J. H., Kim, H. J., & Cho, H. J. (2012). An oral history study of nursing education and nursing activity in the Jinju area from 1940s to 1960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 357-373.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4.357>
- Kim, G. O. (2013). Oral history and healing - For the possibility of healing trauma.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55, 131-165.
- Kim, H. Y. (2012). History-retelling and healing of trauma. *The Journal of Humanities*, 21, 31-54.
- Kim, K. B., & Sok, S. H. (2006). A study of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2(1), 14-24.
- Kim, M. H., & Han, J. H. (2013).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153-193.
-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7). *Seventy years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Seoul: Author.
-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05). *Oral history method and case*. Seoul: Sunin.
- Lee, H. K., Yang, Y. H., Gu, M. O., & Eun, Y. (2009). *Introduction of nursing research*. Seoul: Hyeonmunsa.
- Lee, J. Y., Kim, Y., & Kim, G. (2013). A study on the analysis and methods to improve the medical records management in a large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3(1), 107-134.
- Lee, O. C., & Wang, S. J. (2008). Exploration on disaster nursing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4(2), 95-104.
- Morse, J. M., Hutchinson, S. A., & Penrod, J. (1998). From theory to practice: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guides from qualitatively derived theor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8, 329-340.
- Oh, S. S., & Shin, H. K.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ife stres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post-traumatic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5·18 victim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595-611.
- Van Kaam, A. (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New York: Doubleday.

- Van Manen, M. (2006). Writing qualitatively, or the demands of writing.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 713-722.
- Yang, Y. K., & Jung, H. G. (2013). Memory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nurses on the '5·18 Democratic Uprising': Focusing on general hospital. *Democracy & Human Rights, 13*(2), 43-78.
- Yi, G. (2012). Jeong Jongmyung, a Korean feminist and mid-wife of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1*, 551-592.
- Yi, G. M. (2013). Historical review of Lee Keumjeon, a pioneer in community health nursing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74-86.
- Yoo, M. (2011). Work stress, turnover intention and burnout among nurs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 115-126.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1.115>
- Yoon, T. R. (2011). Oral history interview and historical trauma: Possibility for combining the task of seeking truths with healing historical wounds. *Studies in Humanities, 30*, 381-406.
- Yoon, T. R., & Ham, H. H. (2006). *Oral history research methods*. Seoul: Arche.